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위령봉사회	12월 3일(일), 11:40	강당
M.E.	12월 3일(일), 11:50	6교실
제대헌화회	12월 5일(화), 10:30	2교실
1Cu-우리어머니	12월 10일(일), 12:30	강당
2Cu-사도들의 모후	12월 10일(일), 13:30	강당
임원모임	12월 20일(수), 19:30	강당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 / 강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시 : 12월 4일(월), 10시

구역 미사

일시	담당 구역	장소
12월 05일(화), 20:00	5구역	강당
12월 12일(화), 20:00	11구역	강당

알림

- 12월 8일(금) 지역별 병자영성체가 있습니다.
- 12월 13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12월 16일(토), 10시부터 성탄 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 12월 17일은 자선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10시 30분 강당에서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대림 특강 (목요일 저녁 20:00)

일자	제목	강사
12월 07일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박정우신부님
12월 14일	생태적 삶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	

祝 세례 일정

12월 10일(일)	세례식(교중 미사 중)
------------	--------------

대림판공성사 지역별 일정

- 1지역/2지역 : 12월 11일(월), 20:00
- 3지역/4지역/5지역 : 12월 13일(수), 20:00

다음 주일(12/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구역	청소	9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22일 ~ 11월 28일)

교무금	7,244,000원
주일헌금	4,486,000원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2,398,800원
감사헌금	지기홍10만원 이균성20만원 김종란30만원 여성지 5만원 정영자 1만원 손상민백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2/3	황원선	심재순 신종구	최웅조 권태희
12/10	박혜선	조흥환 이응남	윤상기 민옥경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3	최영만	박승환	이운영 이화봉	박형순
12/10	최창열	옥윤필	장인홍 최석준	오광운

화답송 

하느님 저희를-다시 일으켜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구원되리 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50.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출생을 감소만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발 도상국들은 때때로 경제 지원을 특정한 ‘출산 보건’ 정책에 연계시키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가 개발과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 성장과 통합적이고 공평한 개발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나친 선택적 소비주의가 아니라 인구 증가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이는 현재의 분배 방식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현재의 분배 방식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보편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비할 권리가 자신에게만 있다고 믿습니다. 지구가 그러한 소비로 발생하는 쓰레기조차 감당할 수 없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산된 식량 전체의 거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버릴 때마다, 그 음식은 마치 가난한 이들의 식탁에서 훔쳐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와 세계 차원에서 인구 밀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 증가는 환경 오염과 교통, 쓰레기 처리, 자원 손실,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서로 얽힌 결과로 복잡한 지역 사정을 일으킵니다.

51. 불평등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은 우리가 국제 관계의 윤리도 생각해보게 합니다. 현실적인 ‘생태적 빚’은 특히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 불균형, 그리고 특정 국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천연자원을 지나치게 이용한 사실과 관련 됩니다. 산업화된 북반구의 시장을 충족시키려고 천연자원을 수출한 결과로 금광 지역의 수은 오염과 동광 지역의 아황산 오염과 같이 지역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배출된 가스들을 처리하려고 전 세계의 환경 공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쌓여 온 가스 분진을 처리하려고 전 세계의 자연 공간의 사용을 계산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일부 부유한 국가들의 엄청난 소비로 야기된 온난화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 특히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온 상승이 가뭄과 맞물려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 상태의 독성 물질을 개발 도상국에 수출하고, 자본을 대는 나라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개발국에서 기업을 운영한 데 따른 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흔히 다국적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선진국, 이른바 ‘제일 세계’라고 불리는 국가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짓을 이곳에서 저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기업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나면 실업, 활기 없는 마을, 천연자원의 고갈, 살림 파괴, 지역 농업과 축산업의 몰락, 노천광의 웅덩이, 훼손된 언덕, 오염된 강, 유지가 불가능한 사회 시설과 같은 인간과 환경에 부담이 되는 짐만 남게 됩니다.”